광남일보

광주 금남상가 공예품 판매장 새단장
공모전 수상작·오핸즈·관광굿즈 한자리 7

영광,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 성장
장세일 군수 "일자리·인프라 선순환 체계" 8

정기명 여수시장, 일본서 섬박람회 홍보
전남도 오사카 통상사무소 방문 9

KIA 이의리 "부상 없이 팀 승리 이끌 것"
수술 후 함평서 첫 실전…2이닝 비자책 호투 12

조간 제786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음력5월28일)

광주에 'AI 전략 컨트롤타워' 들어서야

이재명 정부 어젠다
광주·전남 현안 담자

〈2〉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출범으로 국정과제 압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 국가시범도시' 추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키로 하면서 광주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는 국가 AI집적단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지난 2023년 첨단지구에 AI데이터센터를 개관한데 이어 77종의 실증장비를 구축하는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총 사업비 4295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은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기술, 인력, 실증환경 등 핵심 인프라 자원을 한곳에 집약해 AI생태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1단계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공지능 핵심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AI 특화 데이터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술 실증을 통해 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AI 실증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산업에 AI를 융합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시장에 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특화 AX 기술개발',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개발', 광주 곳곳을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AI 혁신 인프라 제공' 등이 있다.

이 같은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는 AI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AI 기술 개발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며 기업들의 광주행을 촉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여야지도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관련기사 3면 연합뉴스

첨단에 집적단지 기반 구축…"인공지능 산업 전담·육성"

AX실증밸리 등 2단계 예산 시급…AI컴퓨팅센터도 절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AI 2단계 조성사업이 큰 차질을 빚었고, 급기야 AI데이터센터 일부는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다행히도 내란과 탄핵 정국으로 멈춰섰던 광주시의 AI 2단계 사업은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서 속도를 내게 됐고, 광주·전남의 압도적 지지 속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지난 18일 과기정통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에 방점이 찍힌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키로 하는 내용이었고,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이 분야에만 12조3000억원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에 6000억원을 투입해 AI 2단계 사업인 'AX실증밸리 조성'과 155개 연구개발 과제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맞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도 AI 공약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 차원의 지역 공약사업을 강조할 대선공약 상황실을 서울에 마련하고, 관련 예산이 올해 2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고 있다.

AI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도 뛰고 있다. 더욱이 박균택·안도걸 등 지역 국회의원이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선임된 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AI미래기획수석에 광주AI사관학교 교장을 맡아온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이 임명되면서 광주를 국가 AI산업 기지로 키워내겠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수훈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 '광주에 AI데이터센터에 이어 고성능 반도체를 집적한 국가AI컴퓨팅센터까지 확충해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광주는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AI 관련 예산 확보도 시급하고,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을 갖춘 광주에 국가AI컴퓨팅센터도 들어서야 광주가 진정한 국가 AI시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광주 충장축제 10월15일 열린다

'추억의 동화' 스토리텔링
시민 제안 프로그램 진행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 동안 동구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충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를 주제로, 금남로·충장로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올해 충장축제의 특징은 일회성 관람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기획·제작·운영해 '진정한 시민축제'로 도약한다는 점이다. 축제의 핵심 테마인 '추억의 동화'는 금남로라는 공간이 가진 고유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동구는 '어릴 적 추억 속 동화, 사랑과 모험, 소망과 상상이 가득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다시 되살려, 판타지가 가득한 축제 속에서 새로운 동화를 써내려 간다'는 구상이다.

금남로의 각 구간은 서로 다른 동화 속 공간으로 연출되며, 시민들은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동화 속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금남로가 가진 '추억과 향수'라는 정서적가치를 '동화'라는 보편적코드와 결합해 모든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적 연결고리를 만들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개인이나 단체, 동아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기획안은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추억의 동화' 테마에 맞춘 충장 퍼레이드와 전국 각지의 퍼레이드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경연 퍼레이드도 펼쳐진다.

충장 퍼레이드는 주민들이 직접 동화 속 캐릭터로 분장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퍼레이드로, 13개 행정동 주민이 만든 다양한 동화 캐릭터들이 금남로를 가득 메울 예정이다.

임택 청장은 "충장축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시, 중재안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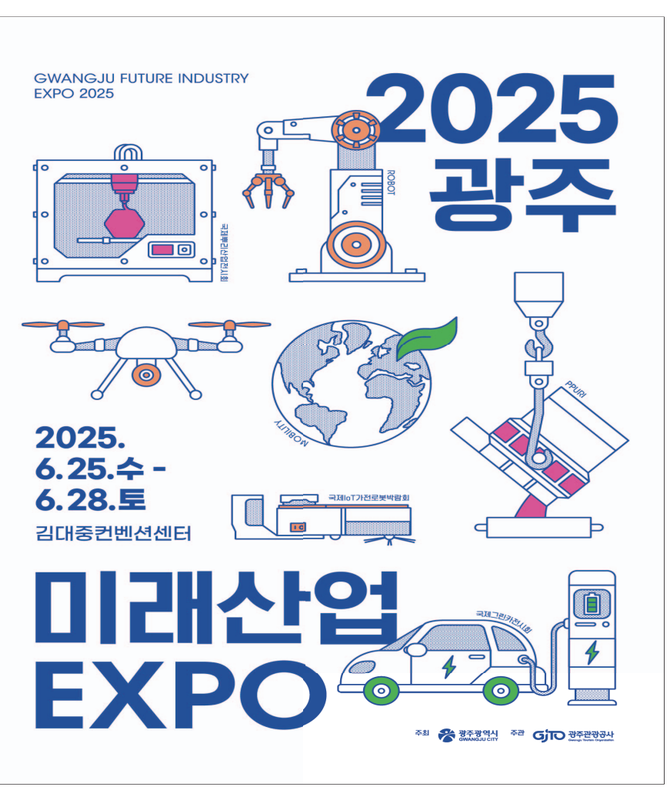
기본급 3% 인상·정년 62세 등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13일 만에 종료돼 지난 21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중재로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이 지난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임단협 합의 내용은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연장, 광주시가 구성하는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의에 노사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전반 구조 개선 협의 등이다.

강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어 "모두를 힘들게 하는 파업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광주의 새로운 변화 발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장승기 기자 sky@